화학공장 안전사고 특별점검 추진

노동부, 월드컵 대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 PSM 활성화도

노동부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 5월말 이전까지 중대산업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8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사업장은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토록 하고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월드컵 개최기간 중 화학공장의 시설 및 공정에 대한변경, 개·보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변경관리·안전작업허가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월드컵 개최기간 중 화학물질 운반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지역을 피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3월6일 63빌딩 엘리제홀에서 화학기업 대표들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등 4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용석 장관은 월드컵 개최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한 월드컵 개최를 위한 화학공장의 안전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침체상태에 있던 공정안전관리 활동을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사업장 스스로 활성화시키고,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이 부족한 협력기업을 모기업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화학기업 경영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유해·위험시설 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울산·여수 등 화학공장 밀집지역과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간담회를 연속 개최해 중대산업사고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안전한 월드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에 화학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찬 간담회에는 SK, LG화학 등 화학기업 대표이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단체장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1>